

16/02/14(주) 주일예배 / 제목 : 믿음이 생기는 비결 (롬 10:13~17) p.253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 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그들 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제 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믿음이지 만 정확하게 그 뜻이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에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서론 /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은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의 한결같은 바람 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믿는 것 열심히 믿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한결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 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롬 9:1~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롬 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 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 것입

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어져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 믿음이 생기는 비결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행3:16)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예수를 통하여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고전12:3)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핑계대기를 좋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17절을 보십시오. (16~17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 주면 믿겠다고 표적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 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 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트집 잡아서 논쟁을 일삼았습

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하나님을 떠난 세대(약4:4 참조)로서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땅 속에 있다가 삼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밖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다른 표적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 내는 것이 선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그 외의 표적을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표적과 기적을 보여 주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이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부터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입니다. 들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예언·성경의 기록·글로 기록된 구약·신약 그리고 설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부르짖으며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이유도 믿음이 성경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 거스틴이 젊었을 때 그는 다른 이유로 고민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로 고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어거스틴도 암브로스 주교의 설교를 즐겨 들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어거스틴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창밖에 놓고 있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소리가 “일어나 책을 보아라.”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이 침상에서 일어나 성경책을 펴는데, 로마서 13장 12~14절 말씀이었습니다. (롬 13:12~14)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박혔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회심의 순간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생깁니다.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소리, 사람의 심령을 황폐케 하는 세상의 소리는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대부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과 평안함을 줍니다. 치료와 용서를 줍니다.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10:27~28)**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영생이 있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믿음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시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19:10절 말씀을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오늘날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의 방해 요소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외치실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니까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관심한 사람은 마음을 닫은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마음 문을 닫아 버리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3~4절에 (딤후 4:3~4)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에는 귀를 닫고 허탄한 이야기에는 귀를 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되면 졸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지 않음에도 습관적으로 설교시간만 되면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을 가지게 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되면 말씀을 멀리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도록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창 19:14)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농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차하크”인데, 그 의미는 “비웃다, 희롱하다”라는 뜻입니다. 룻이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유황불로 멸하실 것이라 말하였을 때, 그들은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비웃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4절에 보면 (베후 3:3~4)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말은 없다. 예수 재림이니 심판이니 하는 것도 다 웃기는 일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러한 것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최첨단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단 한 번도 농담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사람에게도 그 어떤 영적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예배 환경이 산만하게 됩니다. 예배시간에 핸드폰이 많이 울립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핸드폰이 울리면 바로 끄면 되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그걸 나가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심지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면 자신도 방해가 되지만 다른 분들에게나 예배전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배에 오시기 전에 핸드폰은 끄시고 오셔서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경이나 주보를 뒤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봉사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음식 장만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행 7: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에 찢렸다는 말은 “화살이 꽂혔다”는 말입니다. “정곡을 찢렸다”는 말입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들의 죄를 낱알이 드러내고 지적하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찢렸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쳤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 나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귀한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3끼 식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일예배,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씨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더 큰 믿음을 원하시거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없는 믿음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밭이 길가와 같이, 그리고 가시밭과 자갈밭 같이 되지 말고 옥토가 되어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다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핵심 :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요약정리 / 믿음이 생기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 - 예배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 것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단의 방해 요소

- 1)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도록 합니다.
- 3)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합니다.